



# 연중 제2주일(1월 14일)

## 그들은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곳을 보고 그분과 함께 묵었다.(요한 1,35-42)



### 안드레아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가리키는 요한 세례자

안드레아와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는 듯 놀란 모습이다. 푸른 색 망토를 입은 안드레아가 베드로에게 빨리 예수님께 가자고 부추기고 있는 듯하다. 예수님께서 길을 걷고 있다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계신다. 하늘의 천사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늘에 계신 하느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두 사람은 이제 새로운 스승을 따르게 된다. 무성한 나무와 푸른 하늘은 예수님에 의해 새로운 날이 펼쳐질 것을 드러낸다.

그림 도메니키노 | 1623-28년, 프레스코화, 산 안드레아 델라 발레 성당, 이탈리아

### 시작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23번 “찬양하라”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저희가 당신께 의탁하게 하소서.
- 주님, 제 마음이 온전히 당신을 향할 수 있게 하소서.

###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 한 분이 요한 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그때에 35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36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눈여겨보며 말하였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 37 그 두 제자는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38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라삐,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라삐’는 번역하면 ‘스승님’이라는 말이다. 39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하시니, 그들이 함께 가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묵었다. 때는 오후 네 시쯤이었다. 40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였다. 41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하고 말하였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이다. 42 그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가자, 예수님께서 시몬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는 케파라고

볼릴 것이다.” ‘케파’는 ‘베드로’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 진행자 |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진행자 |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하시니, 그들이 함께 가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묵었다.” (요한 1,39)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예수님 곁에 머무르기를 희망하고 있습니까?

†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요한 1,41)

일상 속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며, 체험하고 있습니까?

| 진행자 |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 한걸음 더 나아가기

| 진행자 |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가 드리는 미사는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을 바탕으로 두고 있습니다. 복음이 봉독되기 전, 그리고 성찬의 전례를 시작하기 전에 사제와 신자들이 주고 받는 대화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확신하는 대화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우리는 성령과 함께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미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의 몸 안에 담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담은 우리의 몸에 빵

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의 몸을 더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과 온전한 일치를 이루게 됩니다.

‘와서 보아라.’ 하신 예수님을 따라나선 요한의 두 제자는 자신들의 삶이 바뀌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그리고 그 사람 역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시는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 생명의 말씀 정하기

| 진행자 | : 한 달 동안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 말씀 살기

| 진행자 |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 진행자 |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 마침기도

| 진행자 |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 마침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4번 “찬양하라”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